

“고품질 청정약재 생산” 다짐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3, 4일 전주유스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국내 생약농업 활로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회 및 97 생약인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농림부 김영래 차관보와 김태식 국회의원(농림수산해양위원장 참석) 등 내빈과 생산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고품질생약 생산을 위한 생약인의 다짐 △국내생약농업 활로모색을 위한 주제발표회 △생약인의 한마당 △양복규 명예 박사(전주 동암고 이사장)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임연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천년 전통의약의 맥을 이어온 우리 생약재가 수입개방화 물결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고 『이런때일 수록 국산생약재의 고품질화에 최선을 다 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생약농민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 생약농업이 뿌리 내릴수 있도록 주산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계획생산, 일괄수매 방안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식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생산한 한약재는 농가소득 작물로도 중요하지만 ‘신토불이’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품목인 만큼 외국산 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한약재를 생산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국내 생약농업의 활로모색을 위한 주제발표회를 통해 생약농업 육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국내 생약농업 활로모색을 위한 주제발표회」가 8월3일 전주 유스호텔에서 열렸다.

국내 생약농업 활로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회 요지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남 정 학
(중앙본부 전무)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국산 약재의 판로확보는 물론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생약살리기 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시회 행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향해 나갈 것인가.

우선 희귀약초를 포함한 고품질의 약재가 다양하게 전시되어야 한다. 각 도별 전시품목도 지역특산품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타도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행사진행을 위해 약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의사 무료진료도 개인적인 섭외 보다는 지역 한의사협회 등 단체와의 교섭을 통한 섭외가 보다 바람직하고 원활한 진행을 가져올 것이다.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는 필수다. 또 전시회 기간중 한약재 뿐만 아니라 생약재를 이용한 음료 등 가공식품도 함께 전시하는 방안과 생약재의 다양한 이용가능성에 대한 심포지엄 등을 함께 개최하는 안도 생약수요 창출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는 중요한 것은 고품질 약재를 엄선해서 최고의 상품

을 출품하고자 하는 회원 개개인의 마음 자세이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한방의료시장의 확대 등으로 한약재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산약재 생산은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수입산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엄청난 외화낭비는 물론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한약재(생

생약협회 진로 및 활성화 방안
김 우 홍
(경남 남해군 사무소장)

약)의 생산, 절단 가공 유통에 대한 정부의 이원적 관리체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한약재가 생산 및 세척 건조 절단 가공 포장단계에 있어서 농산물로 인정되어 농림부가 관장하지만 최종단계인 유통 가공 소비단계에서는 원료의약품으로 취급되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게 되어 유통구조의 혼란과 철저한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국내산 한약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한방의약품의 원료농산물이다. 농산물 시장이나 원료의약품 시장의 이분법적 해석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 단계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가 반영되어 행정적 정책적 관련부처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생약재는 1990년대 들어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의 계속된 격감으로 수입산과 가격경쟁에서 밀려, 우수한 품질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수입약재의 범람은 국내생약재배의 근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가격경쟁에서 외국에 뒤진다는데 있다. 중국과 같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국내생약의 수출 전망
임 철 호
(주)국동약업 부장)

한약재에 비해 우리나라 생약 가격은 최소 절반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산 생약수출은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부진의 또다른 원인은 환율, 물가불안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대로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일부 중상들의 매점매석도 가격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경제 규모와 질의 향상으로 건강식품 보약과 같은 보조식품을 찾는 소비층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국내 생약산업은 성장가능성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이에따른 저렴한 가격의 생약공급 및 품질의 고급화는 외국산 한약재의 국내 대량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약농업의 현실과 대책
최 성 기
(전남 보성군 공판장장)

현재 생약재배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생약가공 공장을 지원받아 설립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밀듯 들어오는 수입약재와 밀수약재의 범람으로 생산원가 이하로 가격이 폭락한 때문이다.

생약재에 대한 수매정책이 서있지 않은 것도 그중 한 원인이다. 또 생산원가 이하로 생약재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전량 수매, 저온저장고에 보관케 함으로서 생약재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물론 합리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생약품질인증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산지에서 생산된 생약은 거의 헐값에 처분되며 반면 소비지에서는 기대효용을 뛰어 넘는 이상 가격이 형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생약재배를 침체시키고 외국산 생약을 불러들이는 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산농민들이 유통조직망 까지 전담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필하다. 그렇게 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생산농가에 환원됨으로서 생약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국산 생약의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천에 제조업소가 2군데 있는 데 가내수공업과 기계화된 제조업소를 비교해 볼때 기계화 작업이 인건비 절감면에서 우세한 반면 단 시간에 많은양을 가공하다 보니 가내수공업 형태의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생약재는 가공을 얼마나 양심적으로 정성을 다 해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질이 좌우되고

생약가공 및 판로 개척
남 기 철
(충북 제천시 중부공판장장)

판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 생약판매 구축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제일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협회의 경우만 해도 각 지역 공판장 사무소가 있으나 시세 및 물량보유량에 관한 상호정보교환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생약재배 권장도 중요하지만 이에앞서 판로개척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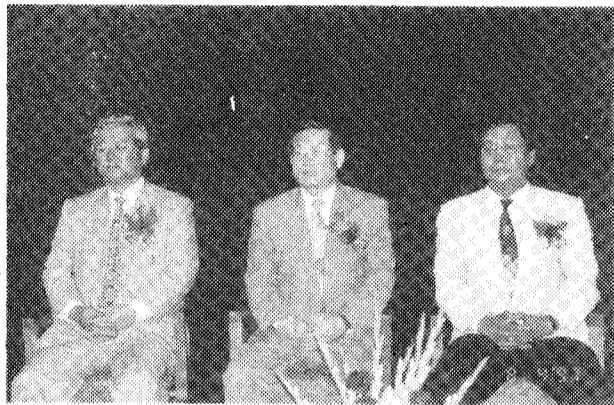
또한 생약재가 갈수록 식품으로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때 생약재를 분말 엑기스 및 건강식품으로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 나가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품질 청정 약재 생산에 최선을 다합니다!



◇2백여명 생약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생약인의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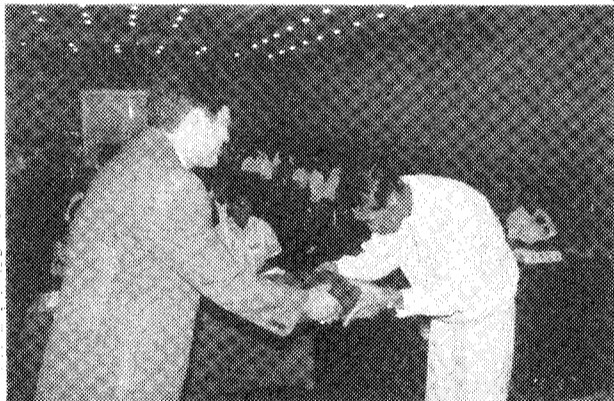
◇참석내빈(좌로부터 김태식 국회의원, 이영래 농림부 차관보, 채대석 농산물검사소장).



◇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국내생약농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생약인의 장"이라고 강조.



◇주제발표회를 경청하는 회원들.



◇임연학회장 이 이번 행사준비에 노고가 많은 전북지부에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산약재가 보편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 특히 8, 9월에 본격 출하되고 있는 익모초, 인진, 박하등 풀잎약재들의 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시세형성이 낮은 저가 약재인 까담에 재배, 채취를 기피함에 따라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기로 분석. 한편 토당귀, 황기, 독활등 몇몇 약재들이 거상들의 장난에 의해 일시적 가격변동을 보일 조짐이다. 그러나 물동량은 많지 않고 거래도 부진한 편이다.

구기자 근당(6백g 기준) 중품은 9천원 선 상품은 9천5백~1만원 선에 산지 거래되고 있다. 지금 산지에서 햇것 출하가 막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작황이 그리 좋지 않아 생산량은 예년만 같지 않을것이란 산지인의 분석. 시세는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맥문동 각 지방 장마다 오름세다.

국내산의 절대적인 품귀현상 속에서 맥문동 시세는 꺾일줄 모르고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산지인 청양에서 거래되고 있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거십이 1만4천5백원 선, 막막이 1만2천원 선으로 지난 7월 시세보다 각각 1천원 가량 오름세다. 그런데 최근 국내산 품귀현상을 틈타 품질이 꽤 괜찮은 수입맥문동이 보따리물건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소문. 이같은 보따리 물동량의 움직임 여부가 향후 시세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보따리 물량

이 그리 많지 않을 경우 햇것이 출하되는 내년 5월까지는 맥문동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기 1년근 소황기가 근당(6백g 기준) 5천5백원 선, 3년근 중황기가 1만7천원 선, 대황기는 3만원 선으로 당분간 보합세 이루고 있으나 현재 시

시 세 동 향

독활, 햇것 출하시기 즈음 일시적 값 폭락 예상

일부에선 "조만간 황기 오름세" 점치기도

맥문동, 계속되는 상승세 황금, 가장 인기 품목

중 거래되는 물동량은 거의 없어 누군가 물량을 대량 묶어놓고 있다는 추측 속에 일부에서는 조만간 황기 오름세를 점치고 있다.

독활 지방에서 도매거래되고 있는 독활시세는 상품기준 근당(6백g 기준) 3천3백원 선(통), 4천원 선(절)으로 보합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확시기를 약 한달여 앞 둔 시점에서 조만간 값이 다소 폭락

하지 많겠느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 지금껏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업자들이 햇것을 농민들로 부터 보다 싼 값에 매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햇것 출하시기 즈음에 보유물량을 대량 풀어놓음으로써 이로인한 독활 가격의 일시적인 폭락이 예상된다. 독활 생산량은 매년 감소추세이며 올 한해 생산량도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시호 시호도 여전히 오름세다. 지난 7월 근당(6백g 기준) 1만4천원 선(상품 기준)이던 식시호가 1천원 오른 1만5천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일본 수출길 두절 이후 삼도시호 재배면적도 예년의 10분1 수준으로 감소, 국내시호 생산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 시장 안 **황금**에서 가장 인기 품목으로 꼽히는 품목. 물량이 그만큼 귀하다. 현재 거래되는 도매시세는 지방에서 근당(6백g 기준) 6천5백~7천원 선이나 물량이 귀해 구하기가 쉽지 않다. 당분간 보합세 유지 전망.

당귀 토당귀 값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은 근당(6백g 기준) 8천원 선(절)에, 중품 7천5백원 선(절)이다. 통으로는 근당 6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일본으로 매년 50t 가량 수출되고 있는 일당귀는 통으로 근당 3천7백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